

# 2014 한겨레신문사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한겨레신문사

## 2014년 한겨레신문사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개요

보고 범위 : 한겨레신문사에 속한 모든 계열사  
보고 기간 : 2014.01 ~ 2014.12  
보고 주기 : 매년 보고  
담당 부서 : (주)한겨레신문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Tel. 02-710-0070  
Fax. 02-710-0080



# 목차

## 1 보고서 개요

- 5 UNGC 글로벌콤팩트 지지선언문
- 6 (주)한겨레신문사 소개
- 7 한겨레 2014 하이라이트
- 8 UNGC 10대 원칙

## 2 UNGC 10대 원칙 이행 내용

- 10 인권
- 14 노동
- 21 환경
- 24 반부패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1 보고서 개요



# 지지선언문

한겨레신문사는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입니다.

한겨레는 세계 유일의 국민주 신문으로 1987년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참 언론을 표방하며, 시대정신의 개척자 역할을 해온 자부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국경을 넘어 적극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2007년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으며, 올해로 여섯 번째 ‘2014 한겨레신문사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이 보고서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한겨레신문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1988년 5월 한국 개별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공정보도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왔으며, 사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권보호’, ‘노동권보장’, ‘환경보호’,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한 세부시행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겨레신문사 및 자회사가 발간 중인 각종 매체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재 보도 활동을 수행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크탱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기업의 사회책임경영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등의 깊이 있는 활동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계기로 한겨레신문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사회책임경영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한겨레신문사가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정영무

정영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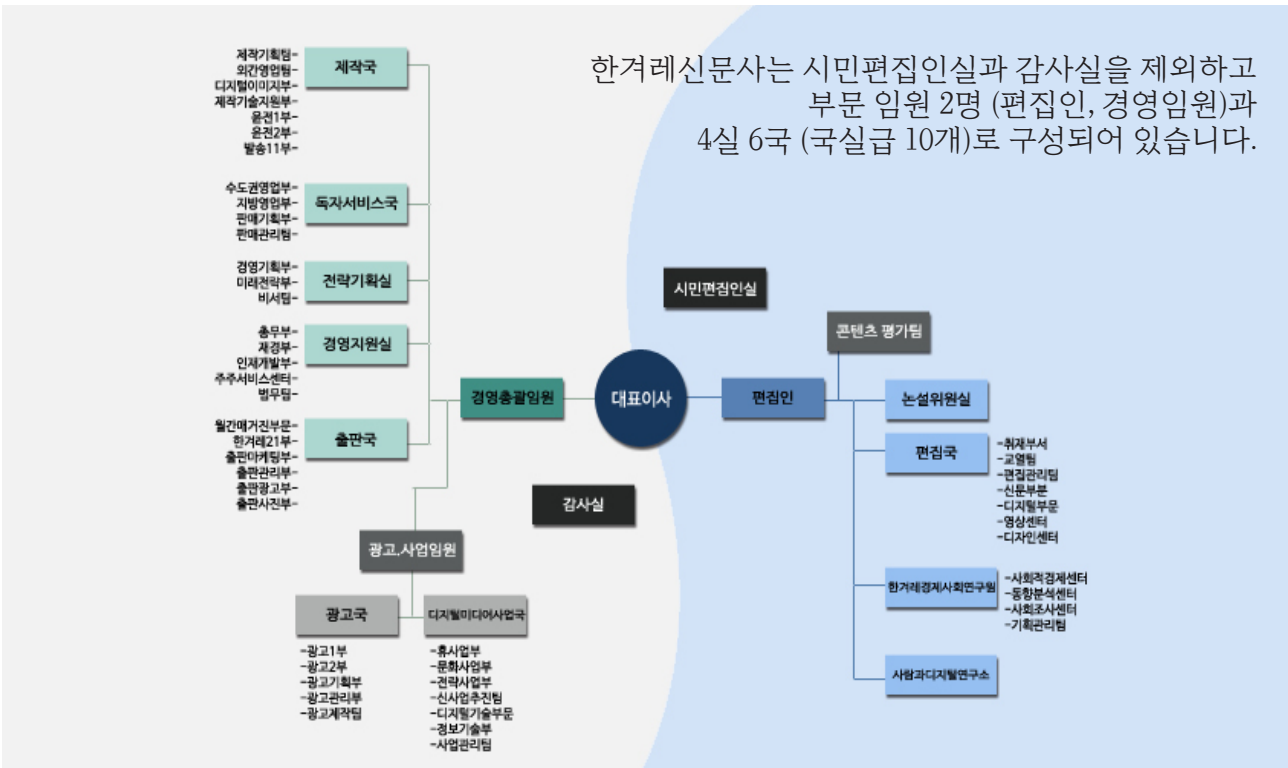
# 한겨레신문(주)

한겨레신문사는 한국 민주화의 결실로 1987년 12월 창립되었습니다.

정치, 경제적 권력에서 독립된 자유언론을 바라는 일반시민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어 설립한 세계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사회약자의 인권과 권리를 중요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한 보도에 앞장서고 있으며, 종합일간지 <한겨레>를 포함해 주간지<한겨레21>, <씨네21>, 월간지<이코노미인사이트>, 인터넷한겨레, 웹방송하니TV 등 다양한 매체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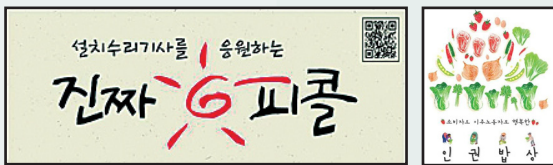
업 체 명	한겨레신문(주)		
사업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간</li> <li>서적 및 출판인쇄</li> <li>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li> <li>광고 제작 및 판매</li> <li>교육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락, 문화 및 스포츠</li> <li>방송채널사용</li> <li>부가통신사용</li> <li>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li> </ul>	
임직원 수	585명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UNGC 가입일	2007년 8월		
CoP 발간	2010년 ~ 2014년	연 락 처	1566-9595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겨레 2014

## 인권



- 2014년 9월 <한겨레2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인식 확대를 위한 '진짜해피콜' 캠페인 실시
- 2014년 10월 <한겨레21> 국제엠네스티 등 국내 인권 시민단체와 함께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 캠페인 실시
- 여성, 아동, 이주민 등 사회소수자 인권 관련 기사 보도

## 노동



- 평등한 고용 환경과 균형있는 일과 삶 보장을 위한 사규 신설 '고용평등 및 삶의 균형 한 노사 공동 위원회' 구성
- 2013년 대비 1인당 교육비 및 교육시간 2배 가량 지원 확대
-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 환경 등 노동 이슈 기사 보도

## 환경



- 2015 마포구청 에너지 절약 우수 건물 선정
- 점진적인 LED 램프 교체를 통해 전력소비량 전년대비 7% 감소
- 환경 경영, 친환경 사회 정책 등 환경 이슈 기사 보도

## 반부패



- 한중일 기업 사회책임경영을 평가하는 '2014 동아시아 30'을 통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들의 실천을 장려
- 편집권 독립제도, 투명한 경영진 선출 및 이사회 운영을 위한 노력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UNGC 10대 원칙

##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노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원칙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2 UNGC  
10대원칙 이행내용

# 인권

## 1. 임직원 인권 존중

〈한겨레신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국제적으로 선언된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단체협약 제 5장 46조를 통해 임직원 권리를 명시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단체협약 5장 제 46조

-제46조(노동조건 원칙)

1. 회사는 적절한 노동조건과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시설 확보에 노력한다.
2. 회사는 증면(혹은 감면), 새로운 매체 창간(혹은 폐간) 및 근무지 변경 등으로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현저히 변경시키게 될 때는 사전에 조합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 2. 인권 분야 보도 노력

한겨레신문사는 한겨레 온라인 뉴스의 사회 면에 여성, 노동, 환경 분야와 더불어 인권 분야의 기사를 별도로 구분해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캡처본 참조)

The screenshot displays several news portals with '인권' (Human Rights) as a category:

- 한겨레 (hani.co.kr):** '인권복지' is highlighted in the top navigation bar.
- 중앙일보 (joongAngilbo.com):** '인권' is listed in the '사회' (Society) category.
- 동아일보 (dongA.com):** '인권' is listed in the '분야별' (By Category) dropdown menu.
- 경향신문 (kyoungHyangShinmun.com):** '인권' is listed in the '사회' (Society) category.
- chosun.com:** '인권' is listed in the '분야별' (By Category) dropdown menu.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3. 독자권익위원회와 시민편집인 운영

〈한겨레신문사〉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익 보호와 시민사회 의견의 적극 반영을 위해 2006년 1월부터 ‘시민편집인’과 ‘독자권익위원회’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시민편집인과 독자 권익 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자율적인 구제를 위해 일하며, 시민을 대표해 신문 제작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 독자권익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는 독자 권익을 보호하고 높이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신문제작과 관련된 독자의 목소리를 편집위원회와 시민편집인에게 전달합니다.

#### 시민편집인

한겨레는 독자가 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편집 또는 제작과정에서 독자의 권익을 충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편집인’을 두고 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독자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6조 고충처리인 조항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 9 조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조항에 근거

〈열린편집위원회 기사 (〈한겨레〉 2014.05.13일자)〉

〈시민편집인 블로그〉

3기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구성

## 독자·시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새롭게 더 강화합니다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김상영 새마을운동부사장, 김재영 중남대 교수, 부미경 은행대신문진행인, 오창익 인연대 사무국장, 이지은 중앙대 대학원생, 한지혜 작가

**한겨레 26** 〈한겨레〉가 지난해 창간 25돌을 맞아 독자들이 더욱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발족한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가 1년 만에 새로 제3기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시각을 대표하는 열린편집위원들과 한겨레 편집 간부들이 매일 한자씩 모여 한겨레 보도 내용과 논조, 공정성·심층성을 평가하고, 한겨레가 다뤄야 할 새로운 의제와 방향을 토론해 지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열린편집위는 독자 및 시민과 함께 신문을 만드는 ‘열린 편집국’ 실험입니다.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제3기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사회학)가 맡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한겨레신문사

#### 〈열린편집위원회 회의 사진〉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시민편집인의 한겨레 비평 활동을 소개하고 독자와 소통하는 곳

이웃블로그 (8) 신청하기 | 연혁

등록된 글 목록

제목	스크랩
410 [댓글중계] '수학 고통 줄이자' 시리즈에 고통 받던 누리꾼들 의견 쏟아..	0
409 [독자의견] 다양한 경제 기사 재검해줬으면	0
408 [독자의견] 한겨레는 왜 '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가..	0
407 [댓글중계] '국정일 해킹 의혹, "순바닥으로 허들을 가릴 수 ...	0
406 [독자의견] 프로스포츠 팀명, 올바르게 써야	0
405 [독자의견] 성폭행 기사에 근본적인 해결책 담아야..	0
404 [독자의견] 한겨레, 기사 검색 기능 강화해야	0
403 [독자의견] '집광선' 기사, 독자의견 잇달려	0
402 [댓글중계] 주한미군의 탄저균 사고, "우리 정부의 역할은?"..	0
401 [시민편집인의 눈] 신문의 소성을 기다리며	0
400 [댓글중계] 아동학대 앞에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길"..	0
399 [독자의견] 전날 경기 결과 알 수 없어 아쉬워	0
398 [독자의견] 성차별적인 기고문 게재 지양해야	0
397 [시민편집인의 눈] 정의는 우리에게 '사치품'인가 / 고영재..	0
396 [독자의견] 사전에는 없고 한겨레에는 있는 (2)	0
395 [독자의견] 주중에도 보고 싶은 친절한 기사들	0
394 [댓글중계] "가늠할 수 없는 마음, 끝까지 함께 하겠다"..	0
393 [시민편집인의 눈] 총리의 거짓말, 대통령의 위선..	0
392 [독자의견] 언론 감시 기능 위축? "무리한 해석"..	0
391 [독자의견] 인문교양 분야 칼럼 많이 실어주길	0

전체보기 (410)  
 @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3)  
 @ 연간 활동기록 (3)  
 @ 활동 기록 (179)  
 @ 독자 의견 (225)

연혁

2015년 2월	8 건
2015년 3월	4 건
2015년 4월	4 건
2015년 5월	4 건
2015년 6월	4 건
2015년 7월	3 건
2015년 8월	3 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4. 인권 증진 활동



### ‘인권 밥상’ 캠페인

한겨레신문사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는 2014년 8월 부터 이주노동자의 가혹한 현실을 담은 기사를 실었고, 10월에는 국제엠네스티 등 각 분야의 8개 단체와 함께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 기타 활동

-<한겨레21>의 이주민들의 인권과 문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8회 이주민영화제(Migrant World Film Festival)-안녕?안녕!’(2014년 11월) 후원활동

-2014년 11월, 한겨레신문사의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를 극복, 학생 인권 회복을 위한 캠페인 <가족사랑 친구사랑 걷기대회>

-2014년 3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이 함께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좌담회」 개최



### ‘미소 뒤의 눈물, 감정노동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한겨레 21>는 2014년 11월 한 달 간 다음 포털 뉴스 편당 프로그램에서 ‘우리 엄마의 감정노동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경비노동자들을 포함한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감정노동 전반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922명이 참여하고 목표액의 두 배를 뛰어넘은 546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 우리 엄마의 감정노동 이야기

최소 1억 원, 감정노동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지역연락처: (02) 2300 2111

273%  
100% 달성

5,460,000원  
기타: 111,000원

공휴  
2월 21일



### ‘진짜 해피콜’ 캠페인

<한겨레 21>는 2014년 9월 부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와 공동으로 ‘진짜 해피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간접고용 설치 수리 기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과 노동권에 대해 환기하고 응원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5. 인권 관련 보도 활동

〈한겨레신문사〉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이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의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 ♀ 여성

#### 비정규직 여성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면...

〈한겨레〉 2014.11.01일자

“맞다. 여성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가까이서 본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파업의 양태가 다를 것 같다. 남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는 가족인 아내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지원을 해주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땐 가족들이 지원을 하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 ‘바지 교복’이 어때서... 〈한겨레〉 2014.11.24일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보수적인 교육 현장이 쉽게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술을 자꾸 따라주면 역사가 이뤄진다” 영명어 토크

#### 서울시 공무원 ‘갑질’ 성희롱 논란

〈한겨레〉 2014.11.28일자

### ♂ 아동

#### 한국 어린이 절반 “놀 권리가 뭐예요?”

〈한겨레〉 2014.11.20일자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31조)은 한국에서 ‘잊힌 권리’다. 한국 어린이 절반은 놀이가 자신의 권리라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주립 열 방치된 영양실조 8살

#### 아동학대 중 방임이 1위...예방 관심없는 사회

〈한겨레〉 2014.08.02일자

“이런 ‘아동 방임’은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아동학대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이다.”



### 사회소수자

기획 연재- 1% 지렛대 예산

#### ④ 이주노동자에게 의사소통 길을

〈한겨레21〉 2014.12.01일자

“통역 서비스 부족으로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의 호소는 끊이지 않는다...(중략)...다문화가족 지원이 중심이어서 이주여성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다.”

#### ‘동성간 성행위 처벌’

〈한겨레〉

#### 균형법 조항 사라질까

2014.03.20일자

“이번 폐지안 입법발의로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균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중략)... 오히려 평등하고 인권적인 군대가 돼야 진짜 군 기강 확립이 가능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의사결정 능력 있는데도...

〈한겨레〉

#### 참정권 빼앗긴 정신장애인

2014.12.06일자

“정신장애인도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알아도 ‘막연한 거부감’을 나타낸다...(중략)... 정신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정신병원 쪽 인식은 여전히 낮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노동

## 1.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위한 노사협의회

한겨레신문사는 <단체협약 제3조>에 근거, 전체 임직원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합대표, 대표이사 및 각 노사 동수로 대표자가 위촉한 직원들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 사항 발생 시에도 임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인센티브 지급, 경영진 선출제도 개선 등 회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조합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합니다.

또한 노사간 원활한 대화를 위해 단체교섭과 상시적으로 경영진과 조합 상급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단체 협약</p> <p>-제3조 (노동3권 보장) 회사는 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p> <p>-제7조 (조합 활동 방해 금지) 회사는 노동자의 조합 가입이나 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나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못하며 탈퇴를 강요할 수 없다.</p> <p>-제11조 (조합 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합법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할 수 없다.</p> <p>-제89조 (설치목적) 회사와 조합은 본 단체협약 전문에 표현된 바를 이루기 위해 쌍방간의 협의 창구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p> <p>-제90조 (협의사항) 본회는 회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조합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p> <p>-제94조 (회의) - 2009.8.27 개정 1. 본회는 매분기 1회씩(1, 4, 7, 10월)하고 회사와 조합 어느 일방이 의제를 부의 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왔을 때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2. 노동조합 운영

구분	상세 내용
동아리/ 학술포럼 지원	활동비 지원
여가(캠핑) 지원	여가비 일부 지원
생일자 선물	생일자 선물 증정
생활자금대출	대상자 선별을 통한 생활자금 저리 대출
사내카페테리아 운영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근로자 쉼터 운영	건강, 휴식을 위한 남,녀 휴게실 운영
그 외 신설된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	조합원 레우기원 성금모금, 바자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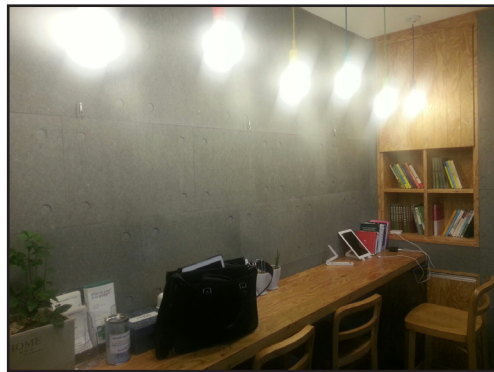
2014년 노조 가입 대상 구성원 수는 573명, 그 중 88%인 504명이 노동조합을 가입하였습니다.

한겨레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일자 축하, 사내 카페테리아 ‘짬’ 운영)

〈사내 카페테리아 ‘짬’ 전경〉



〈해당월 조합원 생일 공지〉



## 3. 부당한 차별 방지 노력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에게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성희롱예방지침〉 등 차별금지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인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사내 불만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내 여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조직구분	대상
여성 사우회	한겨레 내 여성직원
여성 기자회	한겨레 내 여성기자
한우리회	한겨레 내 경영관리직 여성직원

〈단체협약〉 과 〈취업규칙〉을 통해 차별사건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위원회 규정’ 내 의의 제기 조항 및 징계 조항을 두어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경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4. 공정한 인사 평가 제도

한겨레신문사는 직원의 역량과 근무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 직원(휴직, 연수나,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입사 후 1년 미만 등-등 실질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인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 개인의 자기평가서를 바탕으로 부서장의 1차 평가를 거쳐 상급관리자의 2 ~ 4단계의 평가 조정 단계가 있습니다. 평가자에 대한 피평가자들의 상향평가 등 다면평가 결과도 동일하게 반영돼 최종 평가 등급이 결정됩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차적으로 평가자 면담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하도록 하여 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로상, 노력상, 특종상 등 매달 부문별로 우수한 직원들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해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5.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

한겨레신문사는 직원 개개인의 일과 삶이 바람직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여직원 뿐 아니라 남직원들도 육아휴직제도를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속기간 5년 단위로 15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안식휴가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고용 평등 및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규정 사규’를 신설하였으며, ‘고용 평등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사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남녀 직원별 육아휴직 사용비율 및 업무복귀율 (2013~2014년)〉

구분		2013년		2014년	
		단위	비율	단위	비율
육아휴직 사용 비율	남자직원	4명/392명	1%	4명/394명	1%
	여자직원	15명/161명	9%	5명/179명	3%
휴가 사용후 업무 복귀율	남자직원	50%는 현재 휴직중	50%	50%는 현재 휴직중	50%
	여자직원	13,4%는 현재 휴직중	87%	13,4%는 현재 휴직중	87%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율	남자직원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 없음	100%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 없음	100%
	여자직원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 없음	100%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 없음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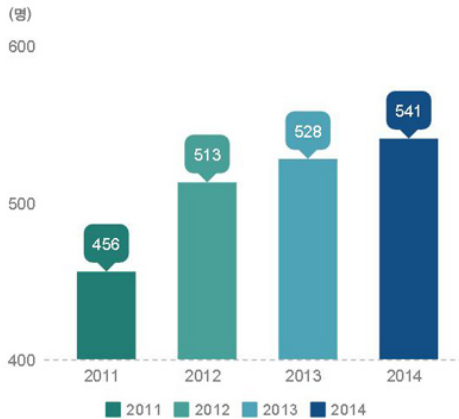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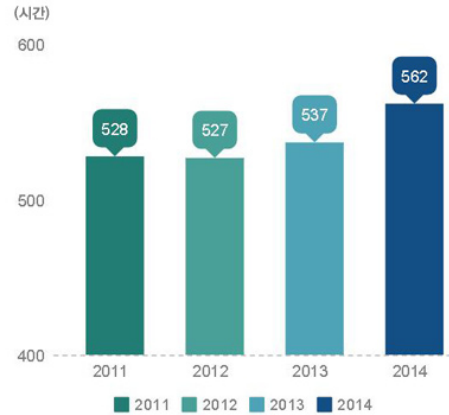
## 6. 남녀 평등 가치 전파를 위한 성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남녀 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올바른 사내 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4년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562시간 진행되었으며 전 직원 92%에 해당하는 총 541명의 임직원들이 수강하였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인원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시간



## 7. 평등한 채용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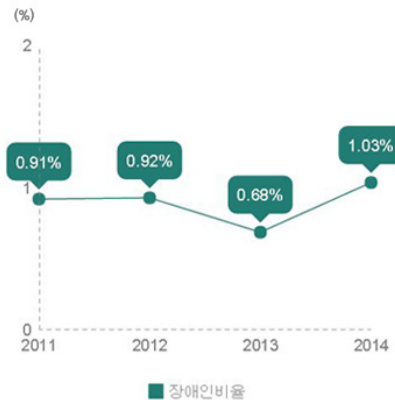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사규 79조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을 근거로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 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국가보훈자 등에 대한 채용 우대 정책을 통해 소수계층에 대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 비율



장애인 직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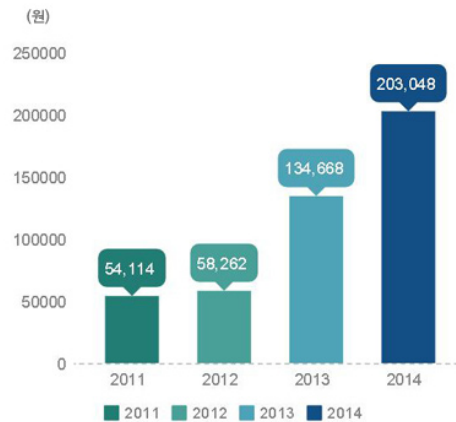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8. 임직원 역량 개발 지원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들의 자아실현과 역량 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직원 1인당 교육비를 2배 가량 늘려 사내 약 10개 학습조직 구성을 장려하고 그룹별로 월 20 ~ 25만원 지원하는 등 임직원들의 자아실현과 역량 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교육비



구분	상세 내용
인재개발 전략	<HRD 전략 및 2014년 기본 교육 방향> ▶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통일된 한겨레 구축 ▶ 단계적 인재개발을 통한 차세대 리더 육성 ▶ 직무 역량 개발을 통한 전문가 집단 완성
	▶ 공통교육(조직적용 및 포괄적 교육 프로그램) ▶ 계층역량증진교육(신입팀장교육, 직책간부 교육) ▶ 현장역량증진교육(직무) : 외부위탁, 사내 과정 운영 중 ▶ 기타(법정필수교육, 면접관 교육)

구분	2013	2014
직원 연평균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 총 직원 수)	1.7시간	4시간
인당 평균 교육비 (총 교육비 / 총 직원 수)	134,688원	203,048원
외부 교육 지원 건수 및 비용 총액 (한국 언론 재단 등)	-	9건 / 무료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2014년 하반기 CoP 확정 안내

2014년 하반기 학습조직 6개 그룹이 선정되었습니다. 육사는 중년반 학습조직에 대해 미원 20~25만원 내에서 도서구입비 및 식대 등의 실비를 지원하며, 외부전문가를 초빙, 공개강좌를 여는 경우 강사료를 지원합니다. 외직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인재개발부 학습팀 0163]

※ 인원: 6명 그룹

그룹명	인원	구성원	학습 목표
1. 영다영	4명	사우후 노원숙, 최정은 최보희	다지안, 동국로, 출판, 브랜드, 주력 모델링 학습
2. 국외한지푸드 연구부일	15명	미재주 김재현 박지영 김다원 김유정 박태우 김지은 김현정 박기홍	세계의 각종 '인문학' 원시자료, 북포수상작, 팟캐스트, 비행, 국산로컬 관련 서적 등을 읽고, 도서구입비의 내역, 총액을 내신제 다과제형일
3. 한겨레 저널리즘연구 모임	15명	김민정 김홍준 최우진 박지영 박현진 송중우 영연과 김지영 이영재 조영문 정현정 최유빈	미국, 한국의 최신 미디어와 미디어 산업의 미래 연구
4. 잇따(BAAGA TRF을 찾아라)	14명	김수진 김민정 김민정 김승연 이은은 김경희 전신희 정현희 조소영 권보성 박상철 윤종호 김수현	다양한 영역의 잡지를 읽고, 직접 각자 관심사를 바탕으로 주제소재와 그룹 논의를 하는 책자의 기획을 소개할 공을
5. 공간연구회	6명	김정진 김민정 박수진 안영진 오은진 이준우	환경계,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특종, 선마, 콘서트할 수 있는 교육/강좌/특저서비스 공간을 기획, 수익구조 연구
6. 도시연구회	11명	김규원 박준현 박기홍 김민정 정경희 권희원 권지은 최성민 이일정 이은진 송창준희	한국 도시의 문화, 시설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하고 현장을 답사

※ 문의처: 2014년 8월 4일 - 12월 31일 (5개월)  
※ 운영에 필요한 그룹에 대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그룹을 지원합니다.  
문의: 인재개발부 학습팀(사내 0163, husy@hani.co.kr)



<사내학습조직(CoP)관련 공지 및 사진 자료>

임직원들이 의미 있는 현장 과제들을 연구하는 자발적 학습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내 학습조직(CoP, Community of Practice)을 모집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학습조직은 도서구입비 및 모임운영비, 외부 전문가 강사료 등의 실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경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9.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휴양시설 운영 지원을 포함해 여가생활, 의료, 교육 등 분야의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복리후생제도 (2014년 기준)〉

구분	정책 및 프로그램	내용
여가생활 지원	휴가 및 안식년 운영	▶경기휴가: 3일 / 10년마다 30일, ▶안식휴가: 5년마다 15일 ▶병가휴가: 유급, 업무상 6개월 업무외 1개월 ▶생리휴가: 유급, 미사용시 수당 지급 그 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휴가
	휴양시설 운영	▶법인콘도 운영: 무주리조트, 일성콘도, 횡성 제너두펜션, 현대수리조트, 대명리조트 (법인평일회원이용)
	직원 취미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내 동아리 9개 활동 중 ▶회사 차원으로 반기 별 5~8개 학습동아리 선정 및 지원
주거/생활안정 지원	재해지원금: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지원	▶재해부조금 (주택완전손실 기본금의 600% 외)
	신설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 <b>긴급대출제도</b> (가계부채나 보정으로 생활고를 겪는 직원)
의료/건강 지원	임직원 건강검진 및 가족건강검진 지원	▶종합검진 연세세브란스 체크업 위탁/ 35만원 상당/ 휴캠프 이용
	임직원 건강상담 프로그램	▶건강상담 및 지도 월 1회 (순천향대학병원 위탁)
교육 지원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고등학교 분기 40만원/ 대학생 학기 240만원 내
법정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제도	▶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가입
선택적 복리후생	연 55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지급	▶1년 이상 재직자 연 55만 복지포인트 지원
출산/모성보호 지원	여직원 휴게실 및 수유실 운영	▶수유실 (냉장고, 소파, 세면대 구비), 여성숙직실 운영
	모성보호 휴가 관련 제도 (여직원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가 등)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1년)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수유시간 (생후 1년미만 1일 2회 30분) ▶태아검진휴가(임신 여직원 월 1회) ▶배우자 출산휴가(3일)
	신설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 <b>시차출퇴근제</b> (1시간 이내 조정) ▶고용 평등 및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규정 사규 신설 ▶고용 평등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사 공동 위원회 구성 ▶'여성 관리자 직책할당제', '임산부 보호 단축근무제', '배우자/태아검진 휴가제도', '가족 사랑의 날' 실시 ▶'가족 돌봄 휴직제' 6개월로 확대

**한겨레 가족 주치의<sup>+</sup>**  
**한겨레 협력병원**

부담없는 건강상담  
신뢰하여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한겨레협력병원

신체 어느 부위가 아플 때  
무엇이 건강의 수준을 느끼고 있는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한겨레 가족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연 6세 이하(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급여 중 일액(100분의 15)을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10. 노동 관련 보도활동

한겨레신문은 노동조합, 비정규직, 작업장 안전 및 보건 등 노동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노조

### 쌍용차 노조 “회사가 해고자 복직대책 내놓아야”

〈한겨레〉 2014.11.17일자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사실상 끝난 터라 회사 쪽을 압박할 뾰족한 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해고자들의 고민이다. 해고 뒤 전국으로 흩어진 해고자들의 일거리가 날이 추워지며 또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힘빼기? 〈한겨레〉 2014.10.16일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정규직 채용에 나섰으나, 비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 노조 힘 빼기’라고 비판하고 있다...(중략)... 사내하청 노조에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노조가 가입 설명회 등을 진행하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 MBC 비정규직 6명 설 직전 해고 통보

〈한겨레〉 2014.02.10일자

“이씨는 자신의 해고와 관련해 회사 쪽의 다른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이씨와 김씨가 앞서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때문에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문화방송이 우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 통상임금 타결에도 비정규직엔 ‘그림의 떡’

〈한겨레〉 2014.08.09일자

“이영수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8일 “원·하청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만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타결된 쌍용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관련 임·단협 교섭에도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대한 언급은 없다. 애초 통상임금 확대 논의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작업장안전/보건

〈한겨레〉 2014.08.22일자

###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법원이 거듭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부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업재해(산)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과 관련이 있는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판단에서다”

### 현대중, 올해 7번째 사고사망...또 하청노동자 〈한겨레〉 2014.10.27일자

“사내하청지회 등은 이번 사고도 사내하청노동자가 아니라면 막을 수 있는 ‘계급형 사고’라고 주장했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환경

## 1. 가스 · 물 절감 노력

한겨레신문사는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한 별도의 구체적 규정은 사규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환경캠페인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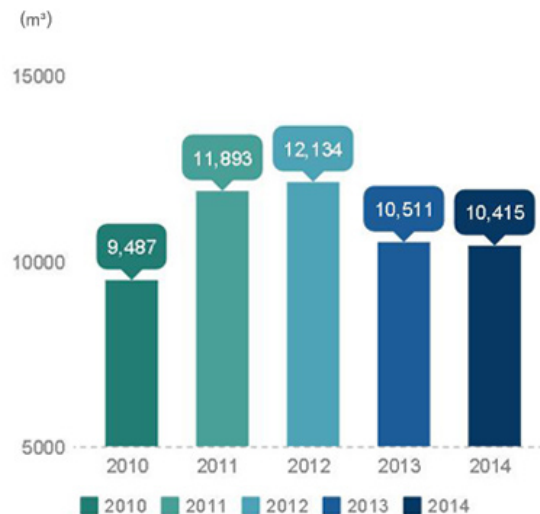
본사 내 가스는 온수기(냉방, 난방) 가동, 운전실 난방, 겨울철 난방, 운전실 샤워용 온수, 세면대 온수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가스사용량은 54,812m<sup>3</sup>로 전년 대비 약 6% 감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수와 정수로 나뉘, 시수는 주로 세면대 등에 사용하고 정수는 기계냉각수, 화장실 좌변기, 소변기 등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하수도 사용량이 10,415m<sup>3</sup>로 전년 대비 약 1% 감소했습니다

가스 사용량



상하수도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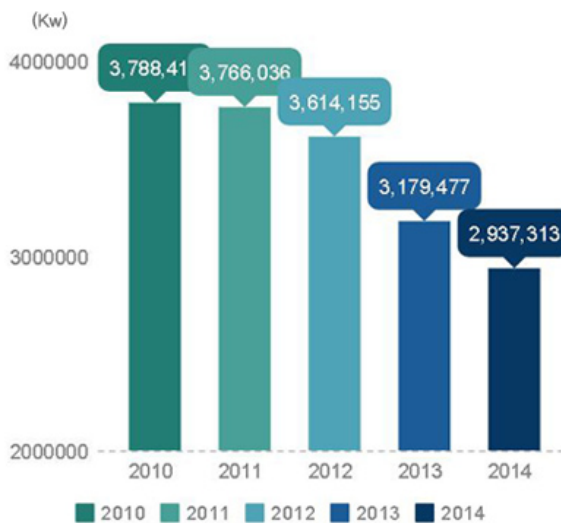
## 2. 종이 및 전기 에너지 절약

한겨레신문사는 매년 종이 및 전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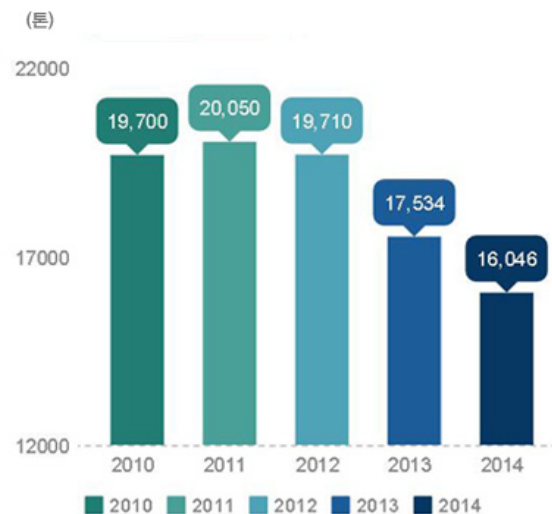
2014년에는 밝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천정 등기구를 LED 조명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감소는 물론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력 소비량도 40%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4년 전기사용량은 총 2,937,313Kw로 전년 대비 약 7%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2015 마포구청 '에너지 절약 우수 건물'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LED 등기구 교체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사무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4년 신문 제작에 사용되는 종이 원료 사용 총량은 16,046톤 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신문 생산과정에서의 폐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공정 과정에 발생하는 폐지, ps판, 지관 관련 우수 재활용업체를 매년 선정하는 등 재활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사적으로 이면지 사용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신문파지 334,155Kg, ps판 31,040Kg, 지관 69,430Kg를 재사용하였습니다.

전기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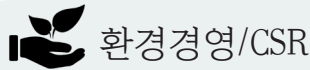
종이 사용량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3. 환경 관련 보도 활동

환경경영에 대한 개념을 확산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장려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CSR

#### '온실가스 감축' 브레이크 거는 자동차업계

〈한겨레〉 2014.02.0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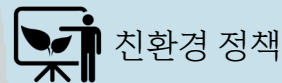
“우리 산업계에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같은 용어가 등장한 지도 오래됐다. 하지만 최근 집요하게 계속되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제도 흔들기를 보면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만은 기업 윤리나 사회적 책임의 고려 영역 밖에 두는 듯하다.”

#### (주)아모레퍼시픽

#### 화장품 빈병 재활용 '그린 사이클'

〈해리리뷰〉 2014.12.30일자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공병의 재활용을 넘어 친환경적 자원 순환과 창의적 재활용을 포함하는 '그린 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정책

#### 광주 운동동·홍천·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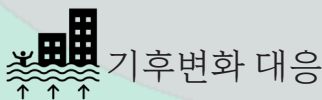
〈한겨레〉 2014.05.22일자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서는 주민·지방자치단체·민간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매립지 등 기피 시설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등의 수익사업을 펼친 뒤 참여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게 된다.”

#### 역사·문화와 결합 '도시재생' 주목

〈한겨레〉 2014.05.27일자

“부수고 다시 짓는 식의 개발 반대편에 '도시재생'이 있다. 오래된 건물을 부수지 않고 지역의 역사·문화와 결합시켜 마을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이 국내외에서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 '배출권거래제' 미래지향적 자세로

〈한겨레〉 2014.07.23일자

“지금 배출량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감축량 배정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나누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미리 줄여나가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릴 뿐이다.”

#### 기후변화 대응에도 '국격'이 있다

〈한겨레〉 2014.04.02일자

“기후변화에 대응하자고 방과제를 높이 쌓는 일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 기후변화의 메커니즘을 좀더 잘 이해하려는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도 시급하다.”

#### 2015년 세계 지속가능성 의제는 “공유경제 뜨고 에너지기업 퇴조”

〈한겨레〉 2014.12.24일자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반부패

## 1. 윤리강령 제정 및 준수

한겨레신문사는 창간과 함께 개별 언론사로써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사실과 진실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알릴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따르는 언론인 자신의 도덕적 결단을 통해 진실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이 수행될 수 있음을 믿으며, 이에 따라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회사내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p>한겨레신문 윤리강령</p> <p>- ‘언론자유’의 수호, ‘사실과 진실보도의 책임’, ‘독자의 반론권 보장’, ‘오보의 정정’, ‘취재원의 보호’, ‘사생활의 보호’, ‘정당 및 종교활동에 대한 자세’, ‘언론인의 품위’, ‘사내 민주주의 확립’ 등</p>
<p>한겨레신문 윤리강령 실천요강</p> <p>- 언론자유’의 수호, 금품수수금지, 보도 및 논평자료 활용지침, 취재 및 여행경비에 대한 지침,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활동 금지, 외부활동 지침 등</p>

## 2. 윤리위원회 운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임명 후 2년의 임기기간 동안 직책을 수행합니다. 윤리위원의 인사 이동이나, 노동조합의 위원 변경 요청이 있을 시, 위원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모든 임직원이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언론인 자신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 속에서 진실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을 하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시행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정책 및 운영 내용</p> <p>- 기능: 윤리강령 또는 실천요강의 유권해석, 세부시행기준 및 방법 결정, 위반행위 조사 및 경고, 회사에 징계권고</p> <p>- 회의: 부서별로 정해진 수의 위원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호선하여 10인 내외 윤리위원 구성. 사안에 따라 과반 혹은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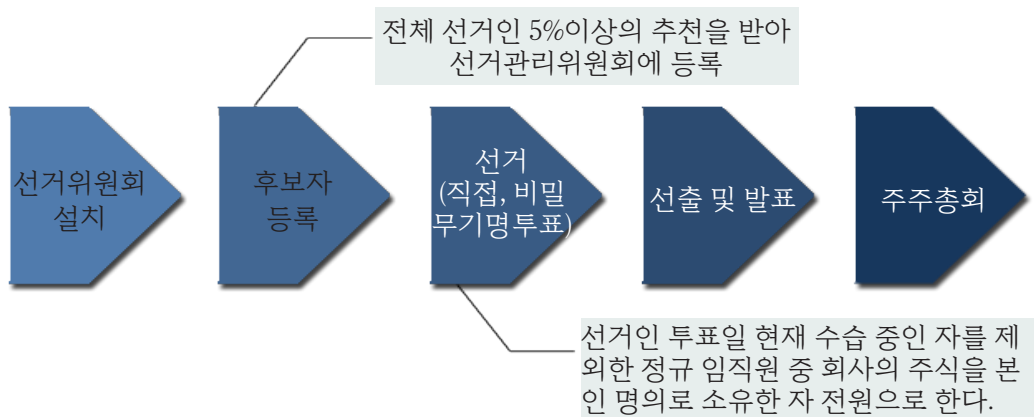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3.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투명한 이사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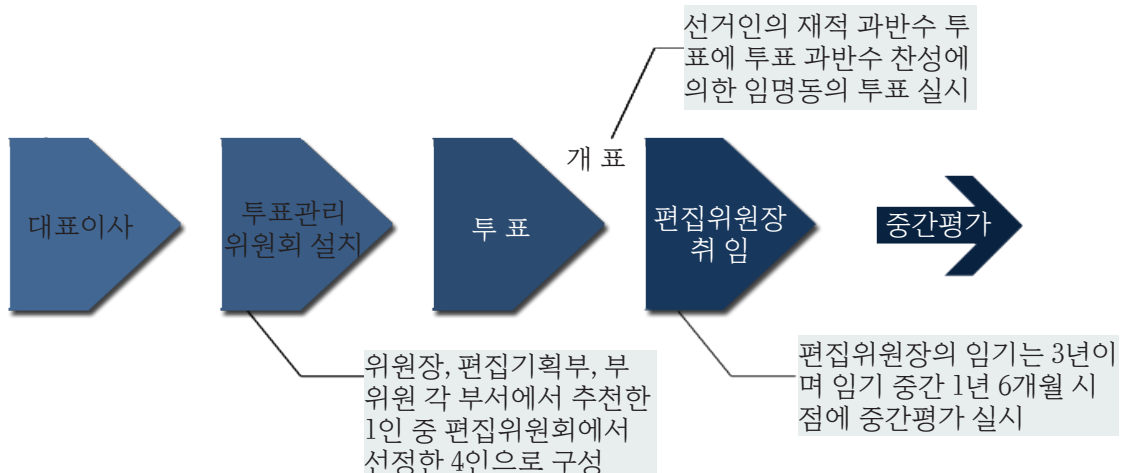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이사회를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전문적 조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체계가 이뤄지도록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4명, 총 12명의 이사로 구성했습니다. 이사회 다양성과 직무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활동 및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사주가 없는 국민주 신문사로 회사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의 직접 평등선거에 의해 대표이사 후보를 선출한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 4. 편집권 독립제도

한겨레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대표이사가 임명동의를 요청한 편집국장 후보에 대해 임명동의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5. 취재보도 준칙 이행

한겨레신문사는 2007년 1월 취재보도 준칙을 공표하고,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우리나라의 '참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

19년 전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엄격하면서도 자율적인 언론윤리의 실천을 주창한 한겨레신문은  
 이 땅의 언론이 스스로 쌓아 온 불신의 벽을 허물고,  
 다시금 참 언론을 실현하는 선두에 서고자  
 정관과 윤리강령에 바탕을 둔 취재보도 준칙을 만들어 공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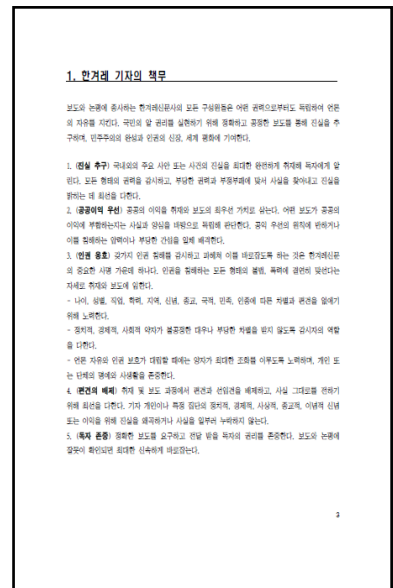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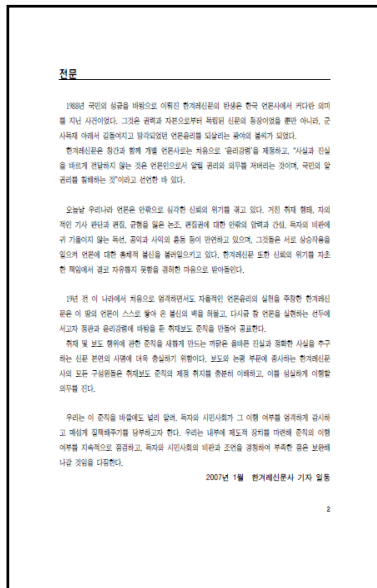
”

-한겨레 취재보도준칙 전문 中

취재보도 준칙은 총 5개 준칙 이하, 세부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1.한겨레 기자의 책무 (진실 추구, 공공이익 우선, 인권 옹호, 편견의 배제, 독자 존중)
- 2.공정한 보도 (충분한 취재와 보도, 논쟁 중인 사안에서의 균형, 사회적 약자/ 대립되는 이해 관계/ 국익/ 남북관계 등에서의 공정한 보도, 반론 기회의 보장)
- 3.정직한 보도 (확인보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취재원의 실명 표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익명보장, 비밀엄수 의무 등)
- 4.취재·보도의 기본 자세 (취재원 보호, 사생활 존중, 희생자/ 피해자 배려, 차별적 표현의 배제, 범죄보도, 관련 법률 준수 등)
- 5.이해상충의 배제 (진실보도 우선, 사적 이익추구 금지 등)

### <취재보도 준칙 (2007년 1월 개정본)>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6. 윤리 경영 관련 사업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일반 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비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조직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기업 사회책임경영을 평가하는 ‘동아시아 30’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들의 실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윤리적소비 공모전’, ‘한겨레협동조합 교육학교’, ‘외씨버선 협동조합 교육’, ‘아시아청년사회혁신가포럼’ 등 공모전과 교육 사업을 운영해 시민사회에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2014 윤리적소비 공모전>



<한겨레 협동조합 교육학교>

날짜	강의명	세부내용	강사명
1강 2/17, 19:30-22:00	1부 오리엔테이션 2부 협동, 신뢰, 사회적 자본 그리고 협동의 경제학	국내외 거시경제의 변화양상을 시장경제, 사회경제, 공동경제, 경리경제 등의 기본 체계에 비춰 소개하고, 우리 사회 운영 원리로써 '협동의 경제학'을 조명함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봉현
2강 2/24, 19:30-22:00	사회적경제의 기본체제와 방법론	현실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의 구체적 모습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이현숙
3강 3/3, 19:30-22:00	협동조합 이해	협동조합이란 무엇이며 협동조합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현태
4강 3/10, 19:30-22:00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모형	국내외 유명 협동조합 사례가 흥미롭고 있는 성공의 열쇠를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원낙연
5강 3/17, 19:30-22:00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기	비즈니스 캔버스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현경
6강 3/24, 19:30-22:00	협동조합설립/전환 절차 및 정관 작성법	협동조합 설립·전환 절차 및 협동조합 가치를 담아가는 정관/각성법 소개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재호
7강 3/31, 19:30-22:00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강민수

1. 아시아청년사회혁신가포럼 (2014.07.03 ~ 07.04)  
아시아의 사회혁신가 청년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형성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포럼을 주최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윤리적소비 공모전 (2014.08 ~ 2014.11)  
윤리적소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제의 공모전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한겨레 협동조합 교육학교 (2014.02 ~ 2014.04)  
협동과 연대,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경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7. 반부패 관련 보도활동

기업을 비롯한 사회 조직 및 기관의 재산 부당취득, 횡령, 뇌물 수수 등 부패 근절을 위한 기사를 적극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기업

### 비자금, 뇌물, '돈봉투'로 얼룩진 송전탑 건설

〈한겨레〉 2014.11.11일자

“공사현장에서 ‘갑’이라 할 한국전력 직원들은 시공사로부터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 명목으로 해마다 수백만원씩 받아왔다고 한다. ‘을’의 위치인 시공사는 이 돈을 마련하려고 가공의 직원 수십명의 급여 명목으로 다달이 1000만~2000만원씩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만든 돈이 2009년부터 13억9000만원이다.”

### 대구일보 회장, 운영업체서 60억대 횡령 혐의

〈한겨레〉 2014.09.10일자

### ‘비리사학’ 광운대 이사장 복귀하자마자 뒷돈 챙겨

〈한겨레〉 2014.12.24일자

###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 검찰, 어제 소환조사

### 납품업체 선정에 압력 행사 혐의

〈한겨레〉 2014.12.24일자



개인

### 비리 경찰들, 4년여간 14억원 챙겨

〈한겨레〉 2014.10.14일자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이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 기아차 노조 간부 등 4명 구속영장

〈한겨레〉 2014.12.23일자

“취업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직 노조 간부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경유착

###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구속 증거인멸 임원과 수천만원 거래

〈한겨레〉 2014.12.27일자

“참여연대는 수사의뢰서에서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 다수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인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범죄에 해당하며, 대한항공 임원들에게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황제경영’ 비리 기업인 풀어주려 왜 그렇게 안달인가

〈한겨레〉 2014.12.26일자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말바꾸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했다. 사면 대신 가석방 얘기가 나오자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짐짓 뒷짐을 지는 모양새이지만, 보통사람들의 눈에는 사면이나 가석방이나 형량을 줄여 풀어주기는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발행일 2015년 9월 | 발행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heri@hani.co.kr)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호창목길6 (공덕동) | 전화 02-710-0070 |  
Fax 02-710-0080 | 웹사이트 <http://www.hani.co.kr>